

고영택

Ko, Young Taeg



징후 - 무너지는 것의 무게
Sign - Boundaries of Crumbling Things

고영택
Ko, Young Taeg

경기창작센터
Gyeonggi Creation Center

2013 경기창작센터 하반기
특별기획전 <기억>

기획
경기창작센터

총괄진행
김진희(학예팀장)

진행
김현정, 윤가혜, 최정수, 박슬기

행정지원
채치용(기획사업팀장), 차영근,
김미선, 이문희, 김홍환

큐레이터 어시스턴트
이현인, 서정민, 조혜정,
이주현, 조근하

시설지원
박문철, 김원철, 박종호, 김남영,
조관휘, 박종원, 강제을,
김병완, 김일용, 심종범, 김옥엽,
유일순, 이정숙, 신진영

디자인
워크룸

인쇄
인타임

번역
신해린, 김현정

편집인
경기창작센터장 박희주

발행인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엄기영

발행처
경기창작센터

발행일
2014. 3. 4

본 출판물은 2013 경기창작센터 하반기
특별기획전 도록으로 경기창작센터에서
발행하였습니다. 본 권에 실린 글과 도판은
경기창작센터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경기창작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로 101-19
t 032 890 4820
f 032 890 4880

www.gyeonggicreationcenter.org

Twitter
@creation_center

Facebook
Creationcenter

Gyeonggi Creation Center:
Special Exhibition in 2013
<Memory>

Organised by
Gyeonggi Creation Center

Publication in Charge
Kim Jinhee(Chief Curator)

Curatorial Support
Kim Hyun Jeung, Kaye Yoon,
Park Sulki, Choi Jeong Soo

Administrative Support
Choi Chi Yong(manager),
Young Kun Cha, Mi Sun Kim,
Lee Moon Hee, Kim Heung Hwan

Curator Assistant
Lee Hyunin, Seo Jeongmin,
Cho Hyejung, Juhyun Lee,
Keunha Cho

Maintenance Support
Park Moon Chul, Kim Won Chul,
Park Jong Ho, Kim Nam Young,
Cho Kwan Hui, Park Jong Won,
Kang Jae Ui, Kim Byong Wan,
Kim Il Yong, Sim Jong Bum,
Kim Ok Yeup, You Il Soon,
Lee Jeong Sook, Sin Jin Young

Graphic Design
workroom

Printing
intime

Translation
Haerin Shin, Kim Hyun Jeung

Editor
Park Hui Joo
Director of Gyeonggi Creation
Center

Publisher
Um Ki Young
President of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Date of Publishing
4 March, 2013

This book is published in conjunction
with the catalogue for special
exhibition <Memory> of 2013 and
GCC artists' activities.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or
utilised in any means without
permission of Gyeonggi Creation
Center.

© Gyeonggi Creation Center

101-19
Seongam-Ro, Fanwon-gu,
Ansan-si, Gyeonggi-do, Korea
t 032 890 4820
f 032 890 4880



<기억>을 열며

경기창작센터의 2013년 하반기 특별전은 당해 입주작가 5인(팀)의
소규모 개인전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전시는 경기창작센터를
새롭게 리모델링한 이후 대규모 상설전으로 입주작가 쇼케이스 전시를
선보인 데 이어, 전시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매우 실험적이고 다매체적인 방식의 작업들을 선보였고 참여작가인
김미란, 박형근, 고영택, 이혁준, ETC 총 5팀이 경기창작센터에
입주하여 전개해 오던 작품들과 그 과정들을 소개하고 향후 현대미술의
다양성을 선보일 수 있는 새로운 전시공간으로서의 기능, 활용성,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경기창작센터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본 아키요시다이
국제아트빌리지(Akiyoshidai International Art Village)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돌아온 이혁준의 결과보고전이자
소유와 욕망이라는 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우리의 삶과 그
본질을 돌아보고자 반문하는 새 작업을 소개하는 <AIAV결과보고전:
소유_돌>, 어느 날 모든 것들이 하나둘씩 점점 무너져갈지도
모르는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징후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고영택의
영상설치 작업 <징후-무너지는 것의 무게>, 작가의 꿈과 환영으로부터
출발하여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들을
거대한 와이어설치와 영상으로 보여주는 김미란의 <기계의 무의식>,
작가의 고향인 제주도의 생태지대 곳자왓이라고 하는 척박한
환경을 가진 자연지대에 대한 기억, 그 장소가 감내해야 했던 역사적
상흔을 통해 작가를 지배하는 의식, 무의식의 세계를 사진작업으로
보여주는 박형근의 <금단의 숲: 곳자왓, 숲의 기록 2009-2013>,
경기도 연안 일대의 섬들에서 정주하며 사라져가는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모아 한 여성의 일대기를 만든 프로젝트, ETC의
<시화, 시가 되다> 는 모두 ‘기억’(memory)을 매개로 독특한
그들만의 내러티브를 구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Opening Young Taeg Ko's
<Sign–Boundaries of Crumbling Things>

Hyun-jeung Kim
Curator, Gyeonggi Creation Center

I reflect on the unforgettable moments; when I first met Gyeonggi MoMA's resident artist as a curator, and the conversations we had at Daebu Island, preparing for this exhibition. Ko had already spent two years with the 34 residents of Acha Island in Incheon before coming to Gyeonggi MoMA. His collaborative project, led by himself and six other artists, was called “The Song of the Island.” At first I was baffled by his stillness and subtlety, but throughout the long conversations we had and repeated personal encounters, I grew more invested in his project, focused interests, and the directionality of his work - the process of sharing his is what one might call “my song.”

Ko, as an artist who has been focusing on the topic of community, has produced works that portray communities that are not necessarily communities; groups of people who pass by one another disinterested or relationships of lovers through his “Ansan” and “Namsan” series. “Song of the Island,” which consolidates his two-year march through engagements at Incheon's Acha Island, also falls into this category. However, I believe that he goes a step further, zooming in on the weight of individuals who had to share the burden of the community, the isolation and sense of loss one feels in a large group of entities, and the subsequently engendered “relationships.”

Nowadays, people desperately seek and yearn for communication, but at the same time they wish to be isolated and experience moments in which one wishes to become an island. Also, people hope to settle down in a specific community, but can also be weighed down and stressed out by the burden one must carry within the group. Our lives are journeys throughout which we reflect on and choose such relationships; perhaps Ko was trying to express the complicated thoughts and mentalities of people in the course of clashing relationships (among us contemporaries, including himself) through his experiment of describing the individual “weight of life”

in his <Sigh- the Boundaries of Crumbling Things>. The beautiful sunset at Daebu Island and the songs of chirping birds fill the exhibition hall for about 20 minutes, as the viewers encounter the sculpture placed in front of the enlarged sunset scene. They walk about among the installations, and see their own shadows on the screen. Another display shows subtitles and broadcasts narrations read in the artist's own voice. Sitting alone in the dark exhibition hall appreciating this piece, one feels as if the artist is prompting us to reminisce on our own stories as individual entities. The artist also hoped to incorporate his relationships with the islanders in a most natural and in-depth fashion through his piece <Song of the Island>. His point of departure, and his determination to maintain that relational tie, must have enabled such a prolonged engagement as the island residents' dubious response turned to trust and interconnections emerged, free of the label “art.” The more I listened to Ko's stories, the greater became the impact of his Acha Island project among all other community-themed works, which serves as “art in itself.” I even wanted to ask him how he would sustain his relationship-building process once the project was complete. He appeared to have taken all such issues into consideration: “now, I'd go back to the island as an individual and continue our relationship.” His answer led me to think that the very act of and effort for communication artists exert are none other than the gist of contemporary aesthetics.

The artist minimized his spatial scope, sound and visuals to allow the viewers space for individual musings on such matters in his solo exhibition. The only thing we see is a wooden structure, which alludes to crumbling communities, social structures and systems. The closely and tightly knit, individual yet concrete structures of our society in which we live and lead a busy life; even these are falling apart, but we may not be aware of such deterioration due to the gradual nature of the process. I hear the quiet yet insistent voice of the artist as I quietly walk among the installations - a voice that tries to initiate a conversation with us contemporaries rather than forcing his thoughts onto the viewers, through the “Boundaries of Crumbling Things.”

고영택 <징후 – 무너지는 것의 무게>를 열며

김현정
경기창작센터 학예연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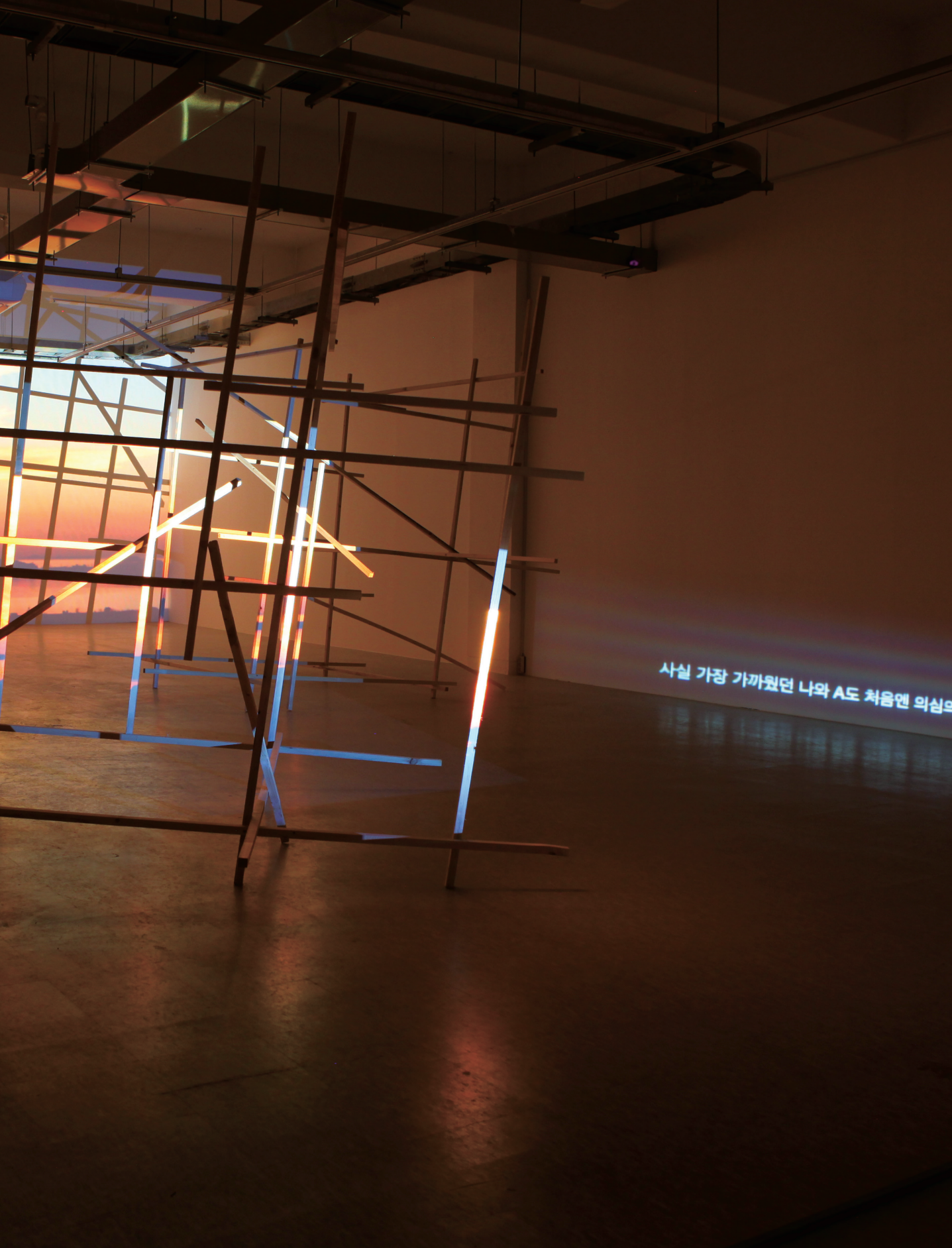
경기창작센터 입주작가와 학예사로 작가 고영택을 처음 만나게 된 순간과 그로부터 이번 전시준비를 위해 대화를 나누던 대부도에서의 시간들이 참으로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고영택은 이미 경기창작센터 입주작가이기 이전부터 인천의 아차도라는 섬을 오가며 34분의 섬마을 분들과 2년이라는 기나긴 시간들을 함께 하고 있었고 그 프로젝트는 7인의 작가들이 협력하여 진행해 나가는 ‘섬의 노래’였다. 처음엔 어떠한 미동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작가의 움직임에 의아하다는 생각도 솔직히 하였지만 그와 마주치면서 간간이 그리고 때로는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길게 대화를 나누며 그의 프로젝트, 일관된 관심사, 작업을 진행해 나가는 방향 등에 얼마나 나조차도 집중을 하게 되었는지 그러한 과정들을 일부나마 공유할 수 있었다는 것이 ‘나의 노래’라고 할 수 있을 듯 하다.

공동체라는 주제에 일관된 관심을 가지고 작업하고 있는 작가 고영택은 그간 ‘안산’, ‘남산’ 시리즈를 통하여 연인들의 관계, 무심한 듯 서로에게 전혀 연관이 없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아닌 공동체에 관한 시리즈 연작을 내놓았고, 드디어 작년 가을 2년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 인천 아차도 ‘섬의 노래’ 프로젝트 역시 공동체라는 그의 관심사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의 작업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했던 부분은 아마 거대 공동체에서 한 개인이 느끼는 상실감, 공허함, 공동체의 무게를 함께 짊어 져야만 하는 개인의 무게, 그럼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관계’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한다.

오늘날 사람들은 소통을 간절히 원하고 그리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립을 자처하고 섬이 되고 싶은 순간들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와 동시에 어떠한 특정한 공동체에 속하여 안착하길 원하면서도 그 내부에서 개인이 감당해야만 하는 무게에 짓눌려 버리고 지쳐 버리기도 하는 것 같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관계를 고민하고 선택하면서 가는 여정일진대 어쩌면 고영택은 작가로서 동시대에 본인을 포함한 가장 모순되는 관계에 있어서의 사람들의 심리와 복잡성을 공동체에서 개인이 느끼는 ‘무게’로 표현해 보기 위한 실험을 이번 <징후-무너지는 것의 무게>에서 이야기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대부도의 아름다운 석양, 노을이 지는 모습과 가감없이 담아낸 새들의 소리가 20여분 동안 전시장에 흐르면서 관람객은 커다란 저녁풍광 앞에 놓여진 조형물을 접하게 된다. 그리고 몇 개의 설치물 사이를 흐르듯이 거닐며 화면에 비치는 자신의 그림자를 보게 된다. 또 다른 영상 밑으로는 자막이 흐르고 작가가 소설처럼 각색하여 만든 나레이션이 흐른다. 어두운 전시공간에 홀로 앉아 이 작품을 감상하게 된다면 작가가 ‘나’라는 존재에게 각자의 이야기들을 떠올리게 하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 같다. ‘섬의 노래’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작가는 아차도 주민들과의 관계를 가장 자연스럽게도 깊이 있게 녹여갈 수 있기를 원했다. 그러한 출발점과 초심을 놓지 않고 갈 수 있었기에 아차도 주민들과도 처음에 그들이 보였던 의구심이 믿음으로 변하고 ‘예술’이라 굳이 명명하지 않고도 인간적인 관계를 맺으며 기나긴 시간을 지내올 수 있었을 것이다. 고영택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가 행했던 그리고 추구했던 공동체 작업 중에 아차도에서의 프로젝트는 ‘예술 그 자체’라는 감동이 전해져 왔다. 오히려 아차도 프로젝트를 마감하고 이후의 관계 맺기를 어떤 방식으로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건딜 수 없이 하고 싶어졌을 정도이다.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예상하고 고려하고 있는 듯 보였다. ‘이제는 개별적으로 섬에 들어가서 관계를 지속해야지요.’ 하는 그의 대답을 통해서 나는 예술가들이 소통하는 그 행위와 노력이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동시대 미술의 미학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작가는 이번 개인전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과정들을 개개인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공간과 사운드, 영상을 최소한으로 설치하였다. 크고 넓게 보자면 무너져 가는 공동체, 사회구조, 시스템을 상징하는 목재구조물 만이 배치되어 있을 뿐이다. 우리가 숨 쉬고 분주하게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이 사회에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그물처럼 짜여져 있는 구조들, 그것마저도 무너져 가고 있지만 어쩌면 단계별로 조금씩 허물어져 가기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일 것이다. 전시장 내부의 구조물 사이를 유영함으로 말미암아 읽을 수 있는 ‘무너져 가는 것의 무게’를 통해 관객에게도 작가자신의 생각을 한쪽으로만 소통시키기 보다는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대화를 시작하고자 하는 작가의 조용하고 나직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어쩌면 그것은 처음부터 자리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과정을
달리해도 바뀌지 않는 결론은 그저 헛된 몸부림과 쓰러져가는 수많은
구조들뿐이다.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 끝이 있는지,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저 추측들만이 난무하는 사이,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할
만큼 슬며시 다가와 그 수를 늘려 갔을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들 중 그것을 처음 알아차린 사람은 매일같이 지는 노을만을
바라보던 B였다. 그는 뛰어난 예지력을 지닌 현자도 깊은 사유를 지닌
철학자도 아니었기에 그 누구도 그의 말을 신용하지 않았다.
사실 가장 가까웠던 나와 A도 처음엔 의심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던
것이 그와의 오랜 관계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믿음이 없었을
것이다. 해질 무렵 오늘은 몇 마리가 날아갔어 라며 하늘을 무리지어
날아가는 새들의 숫자를 세어 우리에게 말해주던 그가 어느 날
모든 것들이 하나 둘씩 점점 무너질 거라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무심히 흘러드는 우릴 향해 다시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였다.
기분이 우울해져 하는 말이라니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웬일인지
그는 더 흐느끼는 목소리로 두어 번 소리 지르더니 조용해 졌다.
그것을 느낄 수 없었던 것이....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없다며 중얼거렸다.



날아가는 새들이 더 이상 무리 짓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도 눈치 채지 못했다. 짐승들이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던 것이 어느 날 사람이 사람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지게 된 사람들은 갑자기 사라진 가족과 친구들을 찾느라 몇날 며칠을 돌아다니다 지쳐 갔다. 혼자라도 살아보려 음식을 저장하고 생필품을 모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늘었다. 그 주위에는 서로를 인지하지 못하는 가족과 친구가 있었다. 지속되던 시간이 멈출 때쯤 텅 빈 건물과 검은 그림자들만이 거리를 가득 채우고 어디선가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투쟁과 합의의 기반위에 세워진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는 개인들이 있다.

우리는 보지 못한 채 서로를 묶은 끈을 당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느껴지는 무게로 존재를 확인하고 혼자 중얼거리듯 들리지 않는 대화를 나눈다.



전시 설치 전경
2013

2012년 가을 허리케인 샌디가 뉴욕을 강타하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black out)가 일어났다. 보통 재해소식을 접하고 드는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시련을 겪었을까, 하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뉴욕의 도시 기능은 대부분 마비되었다. 그러나 정확히 십년 전 그러니까 2002년에 일어난 정전 사태는 조금 달랐다. 2002년의 정전 사태 때에도 뉴욕은 어둠 속에 잠겼다. 그러나 그 사고는 자연 재해가 아니라 시스템 오작동(malfunction)에 의해 일어난 인재였다. 그때 나는 단 한 점의 불빛도 없이-자동차의 헤드라이트를 제외하고-칠흑이 된 뉴욕의 맨해튼 거리를 걷고 있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공동묘지의 묘비들처럼 솟아오른 마천루의 희미한 실루엣을 보면서 '아, 저것은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음, 그러면 저것은 크라이슬러 빌딩이겠군' 속으로 중얼거리며 기이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적어도 그날 밤의 정전 사태는 화려한 글로벌 시티로서의 뉴욕을, 그것의 스펙타클한 질주를 일순간에 정지시켰다. 그러한 기능 정지 상황에서 나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날 밤 뉴욕 시민들은 평소에 할 수 없었던 일탈 행동을 친구들과 이방인들과 맘껏 펼칠 수 있었다. 그 일탈이란 무슨 대단한 악탈이나 범죄 행위가 아니었다. 뉴욕커들은 그날 밤 길거리에서 친구들 또는 낯선 이들과 술을 마시며 신나게 노래하고 떠들며 놀았다(뉴욕에서는 길거리에서 술병을 들고 다니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해방의 전모를 완전히 감각할 수는 없었다. 다만 칠흑 속에서,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언뜻언뜻 비추는 이미지의 파편들을 통해, 그 파편들 못지않게 불분명한 웃음과 노래와 소음들을 통해, 나는 해방된 공동체를 사금파리 조각들을 더듬듯 본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요컨대 도시라는 기계가 멈추었을 때, 도시의 풍경은 희미한 실루엣으로, 도시의 공동체는 빛과 소리의 파편들로 드러난다. 그와 같은 도시의 조각들은 산책자와 이방인의 상상력을 관통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도시라는 통합적이고 세련된 기계를 불완전한, 그러나 해방된 공동체로 경험하게 한다. 도시가 오작동할 때, 도시인들은 비로소 활짝 웃는다. 그 웃음은 도시라는 기계가 제공해왔던 기존의 욕구충족과는 무관하다. 그 웃음은 놀고 즐기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때, 갑자기 삶을 사는데 아무런 목표도 필요하지 않을 때, 하나의 순수한 사건처럼 얼굴 위에서 솟아오르고 번져간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고장난 도시의 불충분한 빛과 불완전한 환경은 그 순수한 웃음의 전모를 도시인들에게 완전히 허락하지 않는다. 그 공동체적 웃음은 언제나 희미한 실루엣과 파편들로, 조각들로 분산되고 모여든다.

나는 고영택의 작품들을 보고 2002년의 뉴욕이 생각났다. 그가 독일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선보였던 〈나와 너, 너와 나_Ich und Du Du und Ich〉와 〈반사_Reflexion〉, 〈빛과 눈_Licht und Augen〉 등의 미디어 아트 설치작품들에서 테크놀로지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법한 어떤 사건이나 상호작용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데 사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작품들에서 테크놀로지는 우리가 현실에서 당연시하는 통일된 이미지를 파편화시키고, 일상적 감각의 불완전성을 강조하는데 사용된다. 고영택의 테크놀로지는 우리가 익숙했던 눈에 보이는 현실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진실을 조명하게 한다.

이때 고영택의 작품은 분명히 어떤 진실을 말하려 한다. 어쩌면 그의 미디어 아트는 브레히트적인 소격효과를 노렸는지도 모른다. ‘낮설게 하기’라는 알고리즘을 따라 정교하게 프로그램화된 기계와 기획을 통해 관객들로 하여금 현대 커뮤니케이션의 불가능성 혹은 가능성을 인식하게 하기. 그런 점에서 그의 미디어 아트는 자신이 고안한 장치를 잘 작동시킴으로써만 현실을 오작동시킨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실을 오작동시킴으로써만 관객의 이성을 작동시킨다고 볼 수 있다. 뉴욕의 정전 사태와 비유를 하자면 그의 기술은 희미한 파편과 흔적들을 탄생시키는 연출된 정전 사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정전 사태에서 관객은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이미지와 사운드를 통해 공동체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가늠한다. 그런데 의도된 정전과 의도되지 않은 정전 사태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의도된 정전은 무엇보다 시학(poetics)을 결여한다. 의도된 정전 사태는 이미 드러나도록 돼 있는 이미지와 사운드만을 드러낸다. 하지만 의도되지 않은 정전 사태는 평소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미지와 사운드를 드러낸다. 그것이 정전이 내포하는 시학이다.

계획되고 기획된 프로그램-테크놀로지적인 측면에서건, 작업 전반의 실행이라는 측면에서건-을 통해 고영택이 성공적으로 실행하려 했던 공동체와 소통에 대한 이성적 판단은 <소리 풍경>이라는 작품에서 드디어 방향 선회를 한다. 모종의 시학이-프로그램이 아니라-그의 작품에서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는 소리에 반응하는 거울 조각들을 전시 공간이 아닌 골목길에 설치한다. 그 동네의 주민들, 아이들은 이 설치를 미디어 아트 작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거울 조각들은 다소 기이한 기계에 불과하다. 골목길에 속하지 않고 골목길에 어울리지 않는, 골목길에 끼어든 불순물로 생각한다. 그러나 예술의 입장에서 보면 전시장 바깥의 골목과 지나는 행인들 또한 불순물이다. 불순물과 불순물의 만남, 작가가 기획하지 않았던 사건들과 상호작용, 미디어 아트가 무엇인지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의 작품 앞에서 보이는 반응, 그리고 아무도 없는데 골목길에 퍼지는 이런저런 소리에 반응하는 거울, 바보 같은 거울, 관객 없이 혼자 움직이는 거울, 기존의 골목길에 없었던 몸짓과 표정과 운동의 출현, 이런 것들이 바로 고영택의 작품에 막 등장한 시학이다.

세 개의 소품으로 이루어진 비디오 작품인 <공동체>에 이르러 고영택이 그간 모색한 공동체는 시적으로 한층 더 진화한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나 시가 그러하듯, 의도하지 않은 정전의 어둠 속에서 드러나는 이미지와 사운드가 그러하듯, 혹은 그가 인용한 모리스 블랑쇼의 <밝힐 수 없는 공동체>가 그러하듯, 그 공동체는 희미하고 모호하다. 그가 촬영하고 편집한 동영상은 아름다운 장면들로 가득하다. 이 아름다운 장면들은 단순히 잘 연출되고 잘 찍혔다는 의미에서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고영택의 영상 작품에서 공동체는 이제 서로에게 이질적 불순물인 상반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것들: 의도한 것과 의도하지 않은 것, 디제시스 사운드와 비디제시스 사운드, 이미지와 텍스트, 소설과 영화...

가로등 불빛 아래의 나방들은 아웃 포커스 되면서 반딧불이 된다. 마치 ‘취미 공동체’의 양면을 드러내듯이. ‘죽음의 공동체’에서 환자복을 입은 한 할머니는 조용히 운동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운동인지, 일종의 안무인지 모호하다. 나방이 반딧불이 되듯이 할머니의 운동은 조용한 무용이 된다. 여기에 자막으로 제 삼자의 목소리들이 겹친다. 고영택이 직접 작성한 소설적, 혹은 연극적 텍스트는 영상과 막연하고 불투명한 인과적인 관계를 맺으며 자막으로 흐른다. <공동체> 삼부작 각각의 텍스트들은 서로 연결돼 있는 것 같지만 그 연결 고리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시학은 ‘순수함’과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공동체는 ‘동일성’과는 거리가 멀다. 고영택의 작품에서 시학은 서로에게 불순물인 이질적 물질들의 혼합이며 공동체는 마찬가지로 서로에게 불순물인 타자들의 혼합이다. 그 불순물들은 때로는 우연적으로, 때로는 계획에 의해 서로 마주보고, 혼합하고, 간섭하면서 ‘밝힐 수 없는’ 공동체의 분위기와 질감을 마음짊한다.

고영택이 참여한 가장 최근 프로젝트인 <섬의 노래>는 일견 ‘착한’ 커뮤니티 아트의 전형처럼 보인다. 작가들은 아차도에 한달 넘게 머무르면서 주민들과 래포를 형성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기록한다. 그리고 그 모든 기록들을 씨디에 담아 주민들에게 선물로 돌려준다. 그러나 커뮤니티 아트가 착해지면 착해질수록, 예술가들이 기록하는 공동체는 무의미하고 반복적인 일상의 재확인이 되거나, 혹은 그러한 일상을 잠깐 잊는 유희적이고 여가적인 이벤트가 된다. 반면에 커뮤니티 아트가 못되면 못될수록, 예술가들은 지역주민들은 한낱 예술적 프로젝트의 소재나 재료로 전락한다. 고영택은 그 어느 것도 아닌, 또는 착하면서 동시에 못된, 못된 척하면서 착한 커뮤니티 아트의 방식을 선택한다.

고영택은 한 노인의 노래를 녹음했다. 그 노래는 바로 Danny Boy였다. 팝송인지 가요인지, 가요인지 민요인지, 민요인지 절규인지 헛갈리는 그 노래에 고영택은 지극히 세련된 현악 반주를 입혔다. 물론 두 버전의 Danny Boy는 분위기가 박자나 음정 모두에 있어 서로 어울리지 못한다. 두 음악은 다른 세계에서 왔다. 두 음악은 서로에게 불순물이다. 이 작품이 자아내는 감동은 노인의 고달픈 인생에 대한 관객의 공감에서 오지 않는다. 또한 현악 반주의 아름다움에서도 오지 않는다. 이때의 감동은 정확히 말하면 그 둘 사이의 거리에서 온다. 즉 서로에게 불순물이자 타자인 두 소리가 서로를 마주하며 끝까지 불협화음을 견뎌내는 데서 온다. 고영택의 작품은 아름다움으로 고양될 수 없는 지상의 Danny Boy와 지상으로 강림할 수 없는 저 높은 곳의 고결한 Danny Boy를 겹쳐 놓음으로써 둘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 한 없이 가까워지는 동시에 절대로 닿을 수 없는 거리를 마술처럼 만들어낸다.

고영택은 아차도의 기록을 씨디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도 선물하지만(착한 커뮤니티 아트) 동시에 전시장에서는 작품으로 설치한다(나쁜 커뮤니티 아트). 그는 사운드를 다섯 개의 트랙으로 분리시킨 뒤, 플라스틱으로 된 구 안에서 재생한다. 이 구는 스피커인 동시에 소리를 가두는 상자이다(바보 같은 스피커다). 본래의 소리는 다섯 개의 트랙으로 분리되어 그 볼륨이 줄어든고 플라스틱 구에 가워져 더욱 불분명하게 들린다. 그때 설치 작품 너머로 프로젝션되는 영상에는 아차도의 일상적 풍경이 재현된다. 머나먼 수평선에서 자그마한 배 한척이 나타나 아주 느린 속도로 화면을 가로질러 지나간다. 나는 이 작품을 보면서 또 다시 알 수 없는 슬픔에 젖어들었다. 그 슬픔의 정체는 막연했지만 그것은 분명 거리에 관한 것이었다. 일상과 작품의 거리, 삶과 예술의 거리... 다시 한 번, 서로에게 너무나 머나먼 것들, 서로에게 속하지 않는 것들, 서로에게 타자이자 불순물인 것들을 연결시키면서 분리시키는, 거리를 확인하면서 거리를 좁히는 시학...

고영택의 불순한 시학이 밝히고자 하는, 혹은 밝힐 수 없는 공동체는 모종의 노스탤지어의 양상을 띤다. 누가 그랬던가. 노스탤지어는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그러나 고영택의 노스탤지어는 현실과 유리된 가상을 그리움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사실 고영택의 이력은 테크놀로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점점 퇴행의 길을 걷고 있다. 그는 인터랙션 미디어 아트에서 시작해서 단순히 기록하고 상연하는 비디오 아트로 돌아오고 있다. 사운드 또한 전혀 복잡하지 않은 방식으로 녹음되고 편집된 후 조금은 바보 같은 스피커로 재생될 뿐이다. 그는 이제 꼼꼼히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기획하거나 계획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이 기록한 평범한 사운드와 이미지에 몇 가지 예술적 불순물들을 섞어 놓는다. 현실은 예술이라는 불순물에 의해 아득한 것으로 경험되고 예술은 현실이라는 불순물에 의해 실패한 기획으로 나타난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일종의 정전 사태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퇴행한 테크놀로지, 그것의 엉성한 작동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감춰져 있던 공동체의 희미한 조각들을 경험한다. 그것들은 마치 잔존하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기억 같다. 고영택은 말한다. 노스탤지어는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다. 노스탤지어는 사라진 것 같지만 사라지지 않은, 잔존하고 있는 경험에 대한 그리움을 뜻한다.

고영택

medienkunst@hanmail.net

학력

- 2008 독일 자르조형예술대학 뉴미디어학과 마이스터술러졸업
2001 추계예술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개인전

- 2013 *징후(무너지는것의 무게)*, 경기창작센터 기획전시실
2009 *공간변주*, 쿤스트독갤러리, 서울
2008 *Escape*, 파란네모갤러리, 압구정, 한글라스 전시지원
반사, 관훈미술관, SeMA 서울시립미술관 신진작가지원 전시
2007 *Reflexion*, Gewoelbe Keller(Hbk Saar),
Saarbruecken, 독일

단체전

- 2013 *커뮤니티 콜라주*, 인천아트플랫폼 A동, 인천
국제현대미술 광주아트비전, 광주비엔날레관, 광주
삼일야화, 경기창작센터 오픈스튜디오, 경기도
미디어 폴리스, 광주 양림동 문화역사마을 미디어파사드, 광주
What's on, 경기창작센터 상설전, 경기도
One Spring Day, 동탄아트스페이스, 화성
진례다반사 - 김해클레이아크미술관 상반기 기획전
2012 *내가 사는 도시 내가 사는 섬*, 인천아트플랫폼 A동, 인천
빛 2012, 하정웅 청년작가 초대전- 광주시립미술관
오픈스튜디오, 고양창작스튜디오
자연과 인간 그리고 소리,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2012
페스티벌 오! 광주 미디어아트 2012, 광주
인트로展, 고양창작스튜디오
2011 *Unrealistic world*, 플레톤 쿤스트할레, 서울
2010 *미디어시즌 인 헤이리 2010*, Art Space With Artist, 헤이리

수상 및 레지던시

- 2013 경기창작센터 창작레지던시 장기입주작가
2012 섬의 노래, 지역공동체문화만들기 기획-인천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현대미술관 고양창작스튜디오 8기 입주작가
2008 SeMa 서울 시립미술관 신진작가전시지원 프로그램

작품소장

서울시립미술관